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January, February 2008 Edition

“This is actually first time to feel God's presence” KSC Youth Leaders guide Tacoma Kids Retreat

"I've been going to church for my whole life. I'm a part of altar service. I was Legio. I thought it was really boring. It seems just duty to do it. I didn't really know why. But, I'm sort of beginning to realize what the whole meaning is, why I should continue going to church."

"I didn't expect too much. I guess kind of because all the retreats are to play, hang out, have fun. But, I think I learned a lot at this retreat."

"Father Martin Burke helped me to open up more and actually like got some advice. I wasn't able to talk to anyone about it. Oh, I did talk to people but they could never gave me advice."

"This is actually first time to feel God's presence. It was very nice to feel God. He was here with me"

“제가 이때까지 갔던 피정은, 갈 때는 재미 플러스 배움,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항상 거의 재미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어찌다가 오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가면 갈수록 재미도 있지만 배움이라는 의미로 피정하는

게 느껴 졌어요. 많이 배웠는데 정리가 안되요. 가슴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에요. 성당에서 복사도 하고 레지오도 했는데 이렇게 가슴이 차 본격적인 처음이에요. Pray in tongue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안 될 것이라 생각



2008 Seminar Schedule

Date	Event	Sponsor	Ask
1/20 - 24	Pilgrimage to Guadalupe	KSC	Julia Lee 253-223-8775
3/28 - 29	LSS Young Leaders Workshop IX	KSC	Julia Lee 253-223-8775
5/23 - 25	Korean National Leaders' Seminars 전국 봉사자 세미나	KSC	Julia Lee 253-223-8775
5/23 - 25	Growth Seminar	Colorado RSC	Peter Ji 303-341-5594
11/14 - 16	National Leaders' Conference	NSC	Julia Lee 253-223-8775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했는데,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기도 하고 있었는데 막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게 되니까 기쁜 마음에도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지난 해 12월 28일과 29일 양 일간에 걸쳐 ‘사도 요한의 집’에서 진행된 청소년 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소감들이다. 대부분의 참가 학생들이 이제까지 참여했던 다른 피정들과는 전혀 다른 피정이었다며, ‘놀이’ 위주의 피정이 아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며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피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워싱턴 주 타코마 본당 소속 9-12 학년 고등학생들의 신앙 쇄신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피정은 타코마 본당의 의뢰로 KSC 청년 지도자 팀이 이끌었다. 수차례에 걸친 청년 지도자 워크샵을 통해 훈련된 3명의 청년 봉사자들 외에도 Western Washington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WWCCR) 에서 파견한 두 명의 봉사자도 함께 했다. 미사와 고해 성사는 Martin Burke 신부가 주례하고, KSC 회장 이창재 부제가 전체 진행을 지도했다. 타코마 본당 소속 14명, 씨애틀에서 4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다.

"이제는 가슴으로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다."

제 2차 동남부 지역 청년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제 2차 동남부 지역 (지도: 이재희 신부, 회장 안 희숙) 청년 성령 안의 삶 세미나가 지난 12월 26일 (수) 부터 29일 (토) 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성 베드로 피정 센터에서 열렸다.

예수 고난회의 김 두진 바오로 신부와 평신도 봉사자 최 베드로 형제 (미주 사제 협의회 사무국장)가 함께 지도한 이 세미나는 18세 이상 35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참가 대상으로 하여 봉사자 포함 9개 지역에서 45명이 함께 어우러져 하느님을 찬미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3박 4일간 진행된 세미나는 새로 구성된 봉사자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첫날과 둘째 날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 새 생명과 하느님의 선물을 받은 강의 후 참회 예절로 이어졌고, 세째날 회개예로의 초대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Happy New Year!

I wish you all Happy New Year in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The KSC 2008 Vision is so on the Life in the Spirit Seminars for Young Adults and Youth Group members in the Korean Communities that we will continue to offer the training workshop in English the LSS Team Leaders for the new

generations.

KSC is planning the next Young Leaders Workshop IX in the spring of 2008. It will be held in the Apostle John's House, Tacoma, WA. I ask each of your prayers and the young leaders to help out. I wish everyone to rejoice in God's grace and love with the Most Blessed Virgin Mary.

와 강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안에 잠김으로써 하느님의 체험이 두드러진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다. 마지막 날은 성장과 변화에 대한 말씀과 결심을 함께 나누며 파견 미사로 마무리 지어졌다.

파견 미사에서는 예정보다 긴 시간 (3시간 30분) 함께 그동안의 체험들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젊은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신 하느님의 현존,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다.



모두 한 모습의 성모님과 수녀님들과 자매님들

타코마 성모 신심 세미나에 다녀 와서

권복진 크리스티나, 타코마 본당

언제나 내 마음 속에는 어릴 적 주일 학교와 중 고등 학교 시절에 수녀원으로 피정을 갔었던 좋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어떤 설레임, 침묵이 주는 평온함, 절제된 생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해 주었던, 그리고 평안했던 수녀원의 분위기와 그 곳에 계셨던 인자하신 성모님과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성모님을 닮은 수녀님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제 마음 한 켠에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일상에서 지쳤을 때, 메마른 마음이 촉촉한 단비를 그리워할 때,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 한 켠에서 아직 기억되는 성모님을 닮은 수녀님이 계셨던 어느 수녀원으로 피정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지난 10월달에 사도 요한의 집에서 성모 신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늘 저런 좋은 기억과 갈망이 있었던 나에게 성모님께서 손짓하셨고,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내 마음도 열어 주셨습니다.

몹시 비바람이 치던 날 방황도 하게 하셨지만, 성모님을 의지하여 사도 요한 집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자매님들의 모습에서 어릴 적 내 좋은 기억에 남아 있는 성모님을 닮은 수녀님들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강의를 듣고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인자하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 주셨고, 또 그렇게 매일 매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평생동안 목주를 손에서 떼지 않고 기도 생활 하며 사셨던 친정 어머니의 끝없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다시 되새기게 하셨고, 오순절 새벽녘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셨던 성모님의 신심을 기억하며 어머니 당신께서 답례하셨던 마니피캇을 저 또한 당신께 드립니다.

“내 몸에 양쪽 날개가 달린 듯 훨훨 날고 싶은 충동”

제 8차 동남부 성령 세미나에 다녀 와서

김상심 카타리나, 탬과 본당

나는 1987년에 영세를 받았다. 영세를 받은 후에는 예쁜 마음으로 매일 새벽 미사에 다녔다. 막내 아들이 새벽 복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새벽 미사는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겨우 일주일에 한번 주일 미사에만 참여하곤 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주일 미사도 빠지곤 했다. 우리 여섯 식구들 가족간의 대화만 나누고 기도와 찬송은 전혀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친구 부인 크리스티나 자매님을 만나, 그녀가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 자매님과 과달루페도 다녀오게 되었다. 과달루페는 많은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여 주었고 나를 깨우쳐 주었다. 그러나 웬지 아쉬운 느낌이 들고, 무언가 허전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성령 세미나를 올랜도에서 한다는 소식을 주보에서 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늘 신자들한테 들었던대로 말씀이 너무 좋아 첫 시간부터 회개하는 눈물이 많이 나와 손수건을 흠뻑 적셨다.

두번째 날, 늘 성령 안에 살려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왕 신부님의 말씀. 기쁜 생활, 정신적 육신적 건강한 삶, 사랑하는 삶, 자유로운 삶,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왕신부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 속에 쑥쑥 들어와 무엇인가 회개하도록 나의 마음을 금방 흔들어 놓았다.

봉사자님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대해 주시면서 자상하게 면담을 해 줌으로써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일, 내 가슴 맨 밑 바닥에 깔려 있던 일들을 고백할 수 있었다. 가슴이 후련하고 내 몸에 양쪽 날개가 달린 듯 싶어 훨훨 날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어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최 데레사, 안 엘리사벳 봉사자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그들이 너무나 훌륭해 보였다.

왕신부님의 마지막 ‘고통’에 대한 강론은 너무나도 나에게 와 닿았다.

고통은 보약과 같다고 하신 말씀... 지나간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고통 속에서 내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변화된 것 같았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사랑, 기쁨, 평화, 선행, 온유, 절제, 진실, 친절, 인내를 꼭 지니고 실천해야겠다고 마음에 다짐했다. 하느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령 안에서 기쁜 생활을 할 것이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주님께 나의 요구 사항만 늘어 놓았지만 이제는 가능하면 혼자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앉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다. 하느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령 세미나에 나를 보내준 남편과 많은 봉사자들, 백 신부님, 박 신부님, 염 신부님, 왕 신부님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KSC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Dr. Andrew Lee	휴스턴	\$3000.00
Dr. Stella Kim	휴스턴	\$3000.00
안희숙	엘리사벳	\$500.00
동남부 봉사회	샬롯	\$500.00
권종상	요셉	\$200.00
김영남	미네소타	\$200.00
김영화	엘리사벳	\$200.00
박건홍	씨애틀	\$100.00
김분다	미네소타	\$100.00
이동곤	뉴저지	\$100.00
익명	로드 아일랜드	\$100.00
이인석	미네소타	\$100.00
Zetts, Kyung H	노스 캐롤라이나	\$100.00
김용손	호놀룰루	\$100.00
전윤희	샬롯	\$50.00
김 루시아	미네소타	\$50.00
Dale, Gemma	오레곤	\$20.00

KSC 복음 선교는 성령께 순종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사업입니다.

세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1월 중 보내드립니다.

서 설(瑞雪)



천상(天上)에서 내리는 송이송이
안개꽃 눈부시어
어둠이 깨어난다
아침을 낳는다

지금은 하늘이 열리는 한 처음
한 세기를 열고 닫는 정점(頂點)
젖무덤 유연한 능선을 밟고
오시는 그대

내밀한 가슴 열며
떨림으로
나 그대 앞에 서 있네

고난(苦難)과 고투(苦鬪)의 어제는 묻고
펼쳐지는 하얀 순수 위에
한 발자국 새 의지를

아 아
몸 털며 일어서서
내 닫고픈 소망은
사랑과 진실의 빛나는 아름다움

새 천년을 열며
천상(天上)에서 내리는 송이송이
목화 꽃 눈부시어
어둠이 소리친다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안 희 숙, 엘리사벳, 샬롯 본당